양씨애미 조상본풀이

이번엔 양씨애미 조상본풀입니다. 양씨애미는 지금 현재도 저, 눈미 와산 가민 삼대, 사대 그 정도벢이 안뒛습니다. 양씨애미 조상은 눈미 양칩잇 조상인데 우이로 오라방이 삼형제 잇고, 똘은 단똘로, 경 너오누이가 솟아난, 아바진 어린때사 돌아가셔불어 신디사, 대ᄋᆞ섯 설 넘언 일곱 설은 당허난, 친구덜이영 강 양태 쫄멍도 놀레, 소리도 허민 심방 소리,
“너 놀레 ᄒᆞᆫ번 불러 봐.”
허민, 놀레도 불르민 심방 놀레. 이제 그디 강 심방
“나 점 해봐. 나 점 해봐.”
허민,
“너 오늘 어멍신디 강 매 맞으키여.”
허민, 아, 집이 강 진짜로 어멍신디 매 맞고.
“너 물질레 가믄 대바지[1] 벌럼직허다.”
허민, 아, 물질레 갓당 대바지도 벌르곡. 경 친구들은,
“아이고, 양씨애미야, 느이, 점쟁이나 헷이민 좋으키여. 심방이나 헷이민 좋으키여.”
허민.
“아이고, 게메 말이여[2]. 무시것사 허민 좋을지 모르키여.”
경 허멍 허는디. 저 눈미 살멍 허벅 지엉 당세미[3]에, 당 이신 ᄌᆞ꼿디[4], 당세미에 물 솟으는디 이시난 그디 물질레 강, 영 동서남북더레 베려봉 사름이 아무도 아니 오라 가민 이녁만 허벅 장단 두들멍 이제 심방 소리도 허여보고, 심방 놀레도 허여 보고.
경 허멍 허는 게, 열다섯 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. 어머니 돌아 가시난 막 울멍
“아이고, 어멍아, 나 놓아 뒁 어멍만 죽어불민, 나 누게영[5] 살렌 죽읍디겐.”
막 헌게. 이젠 개광자릴[6] 파 놓안. 그레 어멍 관을 들여놓젠 헌 게, 오꼿 양씨애미가 개광자리더레 들어가분 거라. 나부떠 죽어불주, 난 살앙 뭣허랴 허난, 이제 오라바님네 삼형제가 제우[7] 달레언 우터레 건져 놘. 게난, 어멍은 묻어뒁 집이 오난, 저 노늘 김씨 선셍 빌어단 귀양풀이 허고, 초새남질로 마당에서 귀양풀이[8] 헨 질을 치는디, 양씨애민 상방에서 마당더레 ᄇᆞ레멍 이제 굿허는 심방 보아근에게 발 어떵 노렌 헌 거 봥 발짓 노레는 거. 손짓 노레는 거 ᄆᆞᆫ딱[9] 뽄딸멍[10] 막, 마당에서 굿은 족은굿이

---

1) 대바지: 물을 길어 다니는 작은 동이.
2) 게메 말이여: 그러게 말이지.
3) 당세미: 샘 이름.
4) ᄌᆞ꼿디: 옆에.
5) 누게영: 누구와.
6) 개광자릴: 장사를 지낼 때 관이 들어갈 자리.
7) 제우: 겨우.
8) 귀양풀이: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굿 이름.
9) ᄆᆞᆫ딱: 모두. 전부.
10) 뽄딸멍: 본 따르며.

뒈고, 지 혼자만 상방에서 허는 굿이 큰굿이 뒌거라. 경 허연 이젠 김씨 선셍님넨 굿 다 허영 안체포[11] 설런 안체포 묶어가난, 이녁도 바로 이녁 입던 옷들 문딱 조근조근 묶언. 김씨 선셍 가부난 이녁도 집 나온 거라. 그 포따리 묶어앚언. 집 나완 김씨 선셍네 집이 춪앙 간

“에이고, 나, 돌앙 뎅기멍 심방 질이나 붸와 줍서.”

허난,

“아이고, 아니 뭽네다. 그 오라바님덜 나 청댓섭[12]에 목 걸려 죽입네다. 훈저 돌아갑센.”

게난, 제일 큰 오라방은 정민장[13]으로 살앗젠. 그 ᄆᆞ을에 정민장, 지금 ᄀᆞ트민[14]은 이장, 정민장으로 사난. 이젠 집이 가렌 허난 집인 안가고, 그 질로 저 물장오리 테역장오리로 올라분거라. 게난 오라바님네 삼형젠 방방곡곡을 다 춪은 거라. 누이가 어서 져부난. 방방곡곡을 춪단춪단 못춪안 소문에 들으난, 물 보레 뎅기는 사름 쉐 보레 뎅기는 사름들 말에 의허난,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어떤 여정녜가 이신디 귀신도 아니고 셍인도 아니라렌 그디 잇젠 소문에 들언. 큰 오라방이, 큰 오빠가 물 타앚언 간 보난, 그 어멍 질 치는거 봐나난, 저 고사리, 고사릿댄 영 서로 ᄃᆞᆼ겨단[15] 영헨 묶어 놓고, 열두 개, 열두 문 잡안. 또 미삐쟁이 꺾어네 그거 신칼 대신 잡고, 경 헨 지혼자만 막, 질치는[16] 시늉을 막 왓다갓다 왓다갓다 허는거라. 경 허난 큰오라방이 거기서 달렌거주.

“아이고, 나 누이야, 느, 이디서 영 허지 말앙 글라. 집이 가민 느 허켄 허는 거 다 해주마.”

경 해주카부덴 물 우터레 톡허게 타난 이젠 집이 돌안 온 거 아니. 겐 돌안 오난, 요 예펜 년 ᄒᆞ나, 요년이 ᄒᆞ나로 우리 집안 멩상거리[17] 허젠 헴덴. 구들더레, 창고 닮은 구들더레 다락 드믈려놘 베낏딜로[18] 상거심통쉐[19] 문을 절로 싱강 ᄌᆞᆼ가분거라. 아이고, 경 헨 ᄌᆞᆼ가불믄[20] 밥도 아니 주고, 물도 아니 주고, 막 물령 죽이젠 허는거주게. 게난 오뉴월 ᄌᆞ작곹이[21] 벳은 콰랑콰랑 나도, 목이 콘콘 물라도 물도 아니 주고 허난, 배고팡 헶이민 셋오라방 족은오라방은, 큰 성 알민 셋아시 족은아시 다 죽을 거주. 큰 성 몰르게 넘어 가는체, 넘어 오는체 허멍 보리낭께기 꺾엉 창고망으로 드믈롼, 베낏디서[22] 물 떵 안네서 뿔아 먹으렌.

“아이고, 누이야 훈저 뿔아 먹어 불라. 뿔아 먹어 불라.”

---

11) 안체포: 무구(巫具)인 멩두를 담아 놓는 자루.
12) 청댓섭: 대나무 잎.
13) 정민장: 지금의 이장.
14) ᄀᆞ트민: 같으면.
15) ᄃᆞᆼ겨단: 당겨서.
16) 질치는: 질침을 하는.
17) 멩상거리: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
18) 베낏딜로: 바깥으로.
19) 상거심 통쉐: 자물쇠.
20) ᄌᆞᆼ가불믄: 잠가버리면.
21) ᄌᆞ작곹이: 몹시 따가운 것 같은.
22) 베낏디서: 바깥에서.

허연 뿔아 먹게 허고, 이젠 산에 강 몰보레[23] 뎅기당 질섶[24]에 탈 탕 그것에 곱졍 완 큰 성 몰르게 창고망으로 줘 이거 먹엉 살아나렌. 아이고, 경 허멍 허는게. 예ᄋᆞ섯(十六) 나는 해엔 오월 쓰무나흘 날은 이젠 ᄀᆞ만이[25] 이시난에 큰오빠가 개 잡앙 숢안 그 국물을 앗앙 온 거라.

“야, 나 누이야, 이레 혼저 나오라.”

허난, 영 베낏디 나오난,

“저 개장국 끓려시메 저거 혼저 먹으라.”

허난,

“나 죽으민 죽엇주 그거 못 먹쿠다.”

“게민 저걸로 머리라도 ᄀᆞᆷ으라.”

허난,

“나, 머리 못 ᄀᆞᆷ으쿠다.”

“게건, 저 걸로 모욕이라도 허라.”

“모욕 못 허쿠덴.”

헨.

“이년, 생긴 년 이런 년이 어디 시녠.”

막, 그 도고리[26]에 논 걸 그냥 확들렁 우터레[27] 확 덮어분 거라. 경 헨, 물 잘잘 허는 걸 구들더레 또 담아 놘 문을 ᄌᆞᆼ가불엇어[28]. 거난 양씨애민 비새ᄀᆞᆮ이 울멍

“날난 어머님아, 날 내불어둬 나 이 고생허게 허젠 내불어둬 어디레 갑디겐.”

허연. 막 울단보난 그자 엎더지언 죽어분 거라. 엎더젼 죽어부난 이제 셋오빠허고, 족은 오라방허곤, 아이고, 인칙이 막 큰성 소리도 나고 막, 우느 소리도 나고 헨게 어떵헌 일인고 허영. 영 완 창고망 똘롼 보난 누이가 죽어서 엎더젼. 경 허난 이젠 ᄇᆞ린 척도 아니 헌척 허연 큰성신디 간,

“형님, 저 년 그만허난 죽은 셍이우다.”

허난,

“그년 죽은 게 아무 년이고 놈이고 칭원(稱冤)허냐? 너네 다 혼칼에 찔렁 죽이켄.”

경 허멍 확허게 완게만은 지동에 마페 치메[29] 걸어저시난 그거 박박 ᄇᆞ련. 일곱메에 묶언. 그냥 지게에 지언 저 와산 절루니왓이엔 헌. 그 지경이름. 절루니왓디 간 그자 땅도 파는 체 마는 체 허연 그자 들여놓안, 흑도 덖으는 체 마는 체 허연 그 우터레 범주리 가시낭 헤단 탁허게 봉분 우터레 덖은 거라. 거저 다 헐만 허난에 그때엔 이젠 셋오바랑허고 족은오라방은 먼 딜로 보단 다 헐만 허난 간 거 아니.

---

23) 몰보레: 말보러.
24) 질섶: 길가.
25) ᄀᆞ만이: 가만히.
26) 도고리: 큰돌이나 통나무의 가운데를 쪼아 넓고 움푹하게 파내어 물건을 놓거나,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 쓰는 것.
27) 우터레: 위에.
28) ᄌᆞᆼ가불엇어: 잠가버렸어.
29) 마페 치메: 마포 치마.

“성님, 이년양, 이만만 허민 뒀우다. 형님이랑 돌아 갑서.”
경 허연 성님은 이젠 집더레 보내둰. 먼딜로 영 보난 집이 다 갈만 허난, 가시낭 걷어두고, 이젠 흑 다 헤쳐두언 누이 파내엉 오라방덜 비새(悲鳥)같이 울멍
“아이고, 서룬 나 동싱아, 그만허난 죽어지엇구나이. 서룬 나 동싱아, 아이 곱닥헌[30] 얼굴에 조은 소리에, 소리도 그만허난 허사로구나. 조은 얼굴도 이제 못 볼로구나.”
허멍 오빠들이 막 운 거라. 경 헨 막 울언
“새로 잘 묻어주마이.”
허연에. 개광자리도 새로 파고, 새로 허영 가멩이턱 허단 덖어놓고, 봉분도 곱닥허게 헤연. 경 헨 와부난, 양씨애미 이제 저승은 들어가가난 서천꼿밧디서 아따, 인간에 얼굴도 좋다, 게난 예ᄋᆞ섯(十六) 나는 해에 문 잡안 눈게 쓰무하나(二十一) 나는 해 오월 쓰무나흘(二十四日) 날엔 경 죽은 거주. 경 허난 인간에도 얼굴 잇구나. 너무 얼굴도 곱덴. 경 헨 양손으로 완 손 심엉 서천꼿밧디 둘앙 가난 꼿감관 꼿셍인은 꼿하 양씨애미 주멍 이거 키우렌 허난, 아, 양씨애미 꼿 준건 시들시들 ᄆᆞ딱 ᄆᆞᆯ라분 거라. 게난 꼿감관 허는 말이
“양씨애미야, 어떵허연 너 우론 쉐궤기 콥내여[31] 돼지고기에 종경내여[32] ᄆᆞᆯ쿼기[33]에 누린내여 개고기에 노랑네여 부정이 만허연 검뉴울꼿 뒈엾저. 는 이 꼿밧디 못산다 돌아가렌.”
경 보내부난 이젠. 저승 용도머리에 완 앚안. 저승도 못 가고, 이승엔 완 보난 신체는 묻어불엇주게. 게난 살아나지도 못허고 경 허연 앚안 울없이난, 고전적 하르방은 ᄆᆞᆯ탕 왕강싱강 ᄌᆞ순네 집이 굿허난 상 받젠 ᄂᆞ려삼시난
“어드레 가는 하르바님 뒙네까?”
허난,
“난, 고전적인데 우리 ᄌᆞ순네 집이 굿허는디 상 받으레 갊젠.”
허난,
“아이고, 하르바님아, 나도 돌앙 가 줍서. 나도 인간에 오라바님네 삼형제가 잇수다만은 큰오라방 강단허연 나 심방 낫젠 허난 못 나게 허연 날 죽여부난 큰오라방 까지는 씨멜쪽[34]을 시기쿠다만은 셋오라방 까지 족은오라방 까지가 이시난, 셋오라방 까지 족은오라방 까지 삼년 일동 굿허민 현감님도 모셔강 상을 받아 안네쿠다. 날 돌앙 가 줍센.”
하도 허난,
“게난 넌 부정이 만 허난이 ᄑᆞᆺ죽[35]이라도 사 먹엉 부정 가영 오렌.”
허난, 이젠 ᄑᆞᆺ죽 할망신디 간 ᄑᆞᆺ죽 사 먹어앚언 현감님이 돈 주난 그거 앚앙 강 헤연 사먹엉 오난, 현감님은 올레에 이시난 심방이 전적 하르바님도 옵센 헤연 들어가불고

---

30) 곱닥헌: 예쁜.
31) 콥네여: 쇠기름 냄새여.
32) 종경내여: 소, 돼지 따위의 불알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.
33) ᄆᆞᆯ쿼기: 말고기.
34) 씨멜쪽: 흔적이나 근거가 없이 모두 없어지다.
35) ᄑᆞᆺ죽: 팥죽.

양씨애민 어느때 올레 사도 누게 원, 원미[36] 흔 숟가락 감주 흔 잔 주는 자가 엇인 거라. 겐 올레 어깃담에 삿단 셋오라방 똘신디 의탁을 헌 거라. 의탁허연,
“난 양씨애민데, 어느 누게 원미 흔 그릇 아니 주고 감주 흔 잔 안 주고. 난, 큰오라방 너무 강단허연 개장국 끓연 나 우이 씌어부난, 난 부정허연 저승도 못 가고, 이싱도 완 보난 신체 묻어부난 이승도 못 오고, 경 허연 난 양씨애미노라.”
입으로, 들련 막 훼뿌리는 거라.
“나 울엉 삼년 일동 큰굿 허민 큰밧 사게 해주고, 족은굿 허민 족은밧 사게 해주뒈, 큰가지는 나가 씨멜쪽을 시기겠다. 겐디 셋가지 족은가지는 막 번성을 해주크메 나 울엉 삼년 일동 굿해 도렌.”
경 허멍 해난 법으로서 양칩이는 고전적 하르방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, 양씨애미를 조승 용도머리에서 만낭 흔디 돌앙 가난 때문에 양씨애미가 우리 ᄌᆞ순네 굿헐 때는 나가 받아 안네쿠다 해나부난, 이제 양칩이 굿 헐 때도 고전적 거느리는 법입니다.

36) 원미: 영 위 앞에 올리는 흰쌀로 쑨 죽.